

조국 “혁신당·민주당은 한 길 걷는 동지”

양당 10·16 재선거 앞두고 신경전 거칠어져 혁신 “호남 국힘” 발언에 민주 “모욕·배신감” 협,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후보 단일화 촉구

10·16 영광군수·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는 가운데 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혁신당과 민주당은 한 길을 걷는 동지인 점을 한 시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10·16 재·보궐선거 박용두 곡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연 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혁

신당과 민주당은 선거 후 함께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독재를 헐 것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조 대표는 최근 민주당과의 갈등 격화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좋아할 일”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은 하되 할퀴거나 비틀지 말자. 각 당의 지지층끼리 싸움을 부추기는 말을 삼가자”고 강조했다.

재·보선 관련 발언을 두고 김성희 민주당 대변인이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할 정도로 갈등이 고조되는 데 대해 자체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호남 재보선과 관련해 “유권자들이 기득권과 토호정당이 아닌 나를 위한 선택, 지역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며 혁신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황 사무총장은 “호남의 ‘국힘’에 줄 잘 서면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을 ‘후보와 공약·당선’이라는 공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이 사실상 민주당을 겨냥해 ‘기득권과 토호정당’이자 ‘호남의 국힘’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민주당 측은 즉각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재보궐선거 총괄지원단장인 황명선 의원은 입장문을 내 “황 사무총장의 표현은 무례하고 거친 표현”이라며 “호남은 반세기에 걸쳐 탄압과 차별 속에서도 굳건히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민주당을 지켜주었다. 이를 폄훼하고 호남을 모욕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황 의원은 “어제는 ‘지민비조’를 애기하고 민주당은 벗이라며 총선에 임

하더니 오늘은 ‘호남 국힘’이라고 공격하는 혁신당의 모습에 차마 말이 막힌다”며 “특히 황 사무총장은 오랫동안 민주당에 몸담았던 분기에 더욱 놀라고 배신감이 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희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은 민주당을 우당(友黨)이라고 해 왔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우당이라는 말인가”라며 “대단히 부적절하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혁신당에 황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 사무총장은 이에 다시 페이스북에 “직전 글에 일부 표현이 과한 점이 있었다.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고 썼고, 해당 표현을 ‘호남의 패권 정당, 기득권 정당’으로 수정했다.

한편, 조국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번 재보선 지역 중 하나인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로부터 “금정구 보궐선거에 승리해 정부의 폭거를 멈춰야 한다. 조 대표가 최선을 다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조 대표는 “반드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단일화가 필요하다. 방식과 절차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답변을 기다린다”고 적었다. /김진수기자

공무원 성비위, 4년 전보다 30% 늘었다

교육부 최다 불명예...경찰청·소방청·과기부順 양부남 “성비위 엄중 처벌 및 예방교육 절실”

성비위로 파면, 해임, 강등 등의 조치를 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건수가 2019년 242건, 2020년 260건, 2021년 238건, 2022년 313건, 2023년 316건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징계 건수가 4년 새 30.5% 늘어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사진)이 25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처별 성비위 징계는 교육부(교원 포함)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청 72건, 소방청 36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건, 법무부 13건, 해양경찰청 13건 순이었다.

징계 수위는 파면 35건, 해임 69건,

강등 24건, 정직 111건, 감봉 51건, 견책 26건이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서 심사한 성비위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인용률은 2019년 14.4%(인용 14건, 처리 97건), 2020년 10.5%(인용 8건, 처리 76건), 2021년 26.6%(인용 29건, 처리 109건), 2022년 23.8%(인용 25건, 처리 105건), 2023년 26.8%(인용 34건, 처리 127건)였다.

2019년과 비교할 때 지난해 인용률이 12.4%p 높아진 것이다. 인용률 증가는 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를 낮게 바꿔



주는 사례가 늘었다는 의미다.

소청위의 징계 처분 감경 사유를 보면 ▲징계 처분 이후 검찰(법원)에서 징계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구분된다.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서 심사한 성비위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인용률은 2019년 14.4%(인용 14건, 처리 97건), 2020년 10.5%(인용 8건, 처리 76건), 2021년 26.6%(인용 29건, 처리 109건), 2022년 23.8%(인용 25건, 처리 105건), 2023년 26.8%(인용 34건, 처리 127건)였다.

2019년과 비교할 때 지난해 인용률이 12.4%p 높아진 것이다. 인용률 증가는 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를 낮게 바꿔



퇴장하는 여당 의원들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야당이 일반적으로 법안을 상정했다고 항의한 뒤 퇴장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외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김홍일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한동훈 대표 만찬 뒷말 무성

“당정 주파수 너무 달라”...독대 불발 아쉬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 만찬이 정국 현안에 대한 논의 없는 식사 자리로만 끝나자 당내에서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상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은 당정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평가 받았지만, 전날 만찬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의료 개혁과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의 민감한 현안을 논의하거나 독대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협

한 당정 관계만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25일 CBS 라디오에 출연, “대통령실과 당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것 같다”며 “의료 개혁도 당 입장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개혁이니깐 그냥 밀고 가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에 나와 “실제

만찬 분위기는 썰렁했는데 대통령실이 화기에 애했다고 해서 화기에 애한 것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에당초 만찬에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의미 있는 결정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대표가 별도로 독대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실과 당 대표실의 주파수가 너무 다른 것 같다”며 “대표실 입장에서는 만찬에서 현안 논의를 하고 싶어 했고, 대통령실은 원전 등 외교 성과를 설명하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불발된 것을 두고 아쉬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연합뉴스

정준호 “쿠팡CLS 불공정 약관 개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사진)은 25일 “쿠팡CLS가 영업점과의 계약서에서 부속합의서 형태로 운영하던 ‘배송 마감시간 정책’의 불공정 조항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쿠팡CLS는 영업점이 정해진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 영업점의 배송 구역을 즉시 회수하는 ‘클

렌징’ 조항을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택배기사들의 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 현안 질의에서 쿠팡CLS가 부속합의서를 통해 생활물류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쿠팡CLS의 현장 실태를 점검했고 공정거래위원회



도 약관 개선을 강하게 요구해 계약서의 ‘즉시’ 해지 조항을 ‘시기를 뒤’해지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정준호 의원은 “이번 조치는 변화의 시작점”이라며 “국정감사에서도 쿠팡CLS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번 개정 조항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남은 불공정 관행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휴집
외벽·독채·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 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 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공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